靑溪 梁大樸의 산수 遊覽과 시적 표현

박 명 희*

〈차례〉

1. 머리말
2. 靑溪의 산수 遊覽
3. 산수 遊覽의 시적 표현
4. 산수 遊覽詩의 평가와 의의
5. 맺음말

1. 머리말

靑溪 梁大樸(1543~1592)은 주로 임란 때 의병을 주도했던 의병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바로 임란이었으며, 그로 인하여 정조 10년에 그의 충의를 기리는 의미에서 신도비와 정려가 세워지고, 정조 20년에 병조판서에 추증되는가 하면, '忠壯'이라는 시호까지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임금의 은혜를 입어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기는 했지만, 사실 양대박이 처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그의 詩才로 인한 許筠과의 만남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허균은 14세 때 스승 李達이 가지고 온 『龍城唱酬集』을 통하여 양대박을 처음 접한다. 『용성창수집』은 이달·白光勳·林悌·양대박 등이 남원에서 詩會를 열고 수창한 시를 모은 시집이었던 모양인데, 누구의 시가 더 나은지를 허균의 형님인 許篈에게 평가해 달라고 가지고 왔었다. 이때 허균은 시적으로 성숙된 단계가 아니었기에 스승과 형님의 대화 내용만 잠자코 듣고 있을 뿐 대화에 낄 수 있는 형편도 되지 못하였다.[1] 그러다가 8년 후 허균은 和仲 許洽의 처소에서 양대박을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동안 말로만 들었던 양대박인지라 허균에게는 인상적으로 다가왔다. 심지어 '異人'이라고 적으며, 양대박이 지은 시를 평하기를 '필치가 도도하여 가는 것은 냇물이 흐르듯, 그친 것은 산이 우뚝하듯, 재료를 선택하는 것은 唐을 법 받았고 江西派에 넘나들어 천고 詞人의 우아한 운치를 다하였다.'[2]라고 하며, 극찬과 아울러 나름대로의 평가를 더한다. 이러한 허균의 서문은 1618년 長城에서 간행한 『靑溪遺稿』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로써 보면 양대박의 시적인 능력이 벌써 이미 인정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고는 양대박에 대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그의 시적인 재능을 드러냄을 1차적인 목표로 정함과 아울러 특히 산수 유람과 관련된 작품을 통해 시적으로 어떻게 표현하였으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3]

鄭琢은 일찍이 「梁大樸傳」서두에서 양대박을 언급하기를 '전라도 남

* 조선대학교

1) 許筠, 『惺所覆瓿稿』 卷4, 「淸溪集序」, "不佞往在壬午歲, 尙少矣, 從亡兄荷谷先生坐, 適舂谷李益之袖所謂龍城唱酬集者一帙, 來質曰, 達頃歲客帶方, 與白彰卿林自順梁士眞同遊處, 是集乃其時賡唱之什也, 四人之作, 孰爲高爲下耶. 先生吟諷久之曰, 諸詩俱淸新, 但務勝而詞碩, 終不若梁之圓轉純熟也."

2) 許筠, 『惺所覆瓿稿』 卷4, 「淸溪集序」, "庚寅秋, 獲覩梁君於和仲許, 喻乎其顔容, 若玉粹而春和也, 朗乎其動止, 若霞擧而雲舒也, 及聆其談古今成敗賢豪出處, 瀏瀏乎若貫珠而決河注之海也, 噫亦異人也哉. 不佞因締之交, 數嘗過從, 日聞未所聞, 觀其作詩, 下筆滔滔然, 行者川流, 止者嶽峙, 材選法唐, 泛濫江西, 極千古詞人之雅致."

3) 그동안 양대박의 문학 연구는 梁太淳(2001)과 안장리(2007)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이중 후자는 16세기 팔경시를 연구하던 중 양대박을 비롯한 김인후, 고경명, 임억령, 박순, 송순 등의 「俛仰亭」 시문을 분석한 논문이기 때문에 순수한 양대박의 문학 연구라고는 할 수 없다. 본 논고에서는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인 『한국문집총간』 53, 『靑溪集』을 저본으로 삼았다. 양대박의 시문집은 모두 다섯 차례 간행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양태순의 논문(2001) 각주 11)을 참조할 것.

www.kci.go.kr

원인으로 시로 세상에 알려져 당대의 재사로 존경받았으며, 담론하는 언사가 유창하고 위대하여 그 당시 사람들이 추앙하였다.'[4]라고 하여 시적인 재능이 남다름을 드러내 보였는데, 양대박은 서얼 출신으로 당시 국법에 묶여 재능이 있다고 해도 그러한 재능을 마음껏 펼 수 있는 기회조차도 얻지를 못하였다.[5] 이렇듯 비록 국법에는 구속되어 있었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자유의 몸이 되어 두류산, 가야산, 천마산, 삼각산, 만리재, 운문산, 금강산 등등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토로하고 있는데,[6] 그러면서 산수 유람을 나름의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산수를 유람한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유람기와 시문 등을 남겨 산수 유람의 자료로써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한다. 또한 이러한 자료들은 당대 여타의 유학자들이 산수를 유람하면서 지은 시문들과 구분되는 차이점이 포착되는데, 이러한 점이 바로 양대박 산수 유람시의 특이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2. 靑溪의 산수 遊覽

앞에서 이미 언급한 것처럼 양대박은 전국 곳곳의 산수를 두루 유람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금강산과 두류산(현 지리산. 이하 지리산으로 지칭)을 유람하고서 金剛山紀行錄」과 「頭流山紀行錄」을 각각 남기고 있어 여행의 실질적인 기록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기행록이 기록된 순서상 금강산의 산수 유람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먼저 살핀 후 그 다음 지리산의 산수 유람에 대한 내용을 볼 것이다

양대박이 금강산을 유람했을 때는 그의 나이 30세였다. 부친 梁鱶가 양대박의 나이 29세 때 관동지방의 목민관으로 부임받자 인사차 들르면서 금강산에 오르려 하였으나 일이 성사되지 못하여 1년을 허송세월 보냈는데, 이듬해 부친이 다시 경상도로 승차하여 가시게 되면서 금강산을 유람하신다는 소식을 접하자 따라 나섰던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는 두류산 아래에서 자라나서 어렸을 적부터 物外의 뜻을 갖고 있었으므로 평생의 사업을 모두 산수에 노니는 일에 붙여버렸었다. 그런데도 이른바 금강은 오히려 능히 구경하지 못했으니, 어찌 신선과 보통 사람은 길이 다르니 속세의 인연이 빌미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때로 혹 중을 만나 산을 이야기하면 금강에 대한 말이 입에서 떠나지 않았으니, 고개를 쭉 빼고 동쪽을 바라보며 훌쩍 날아오르고 싶었던 것이 몇 해나 되었었다. 마침 신미년 봄에 家君께서 北原(현 강원도 원주)의 군수로 나가시게 되었으니, 북원은 바로 관동의 속읍이다. 아버지를 모시는 겨를에 잠시 우산과 미투리를 매만져서 한 번 仙境에 이르면 내 오랜 소원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적이 혼자 기쁘고 다행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이 몸이 적은 녹에 매여 출입하는데 한정이 있고, 세 번 고향에 다녀오는 사이에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 세상 일이 사람을 얽어매는 것이 가히 감옥과도 같다고 할 만하다. 그리하여 매번 蓀谷 李益之와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일찍이 가슴 속이 답답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임신년 여름 사월에 (중략) 갑자기 가군께서 嶺邑의 벼슬을 옮기시면서 금강산을 가신다는 말을 듣고 휴가를 얻어서 쉴 새 없이 말을 달려 가군을 모시고 떠나게 되었다. 이때 익지는 호남지방을 돌아다니느라 고달프기도 했고, 더욱 아직 돌아오지 못했으므로 우리의 절실했던 지난 약속이 마침내 공교롭게 어그러지게 되었다. 그

4) 『靑溪集』 附錄, 「梁公傳」, "梁公, 全羅道南原人, 以詩鳴於世, 負才自豪, 談議偉然, 一時皆慕." 이와 같은 내용은 『國朝人物考』 14집과 『梁大司馬實記』 권1 등에도 수록되어 있다.

5) 양대박의 생애에 대해서는 양태순이 그의 논문(2001)에서 이미 정리하였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그의 생애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하지 않을 생각이다. 그 대신 논의의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가끔 언급될 수 있음을 밝힌다.

6)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余早結烟霞之約, 尙貪方外之遊, 海東名區, 收拾已盡, 賞頭流, 遊伽倻, 略天磨, 尋覆鼎, 飛節載岳, 掉臂雲門, 羣仙之所會, 龍象之所居, 無不窮搜縱探."

www.kci.go.kr

리하여 내 시 벗을 잃게 되었으니, 어찌 이번 여행의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아니겠는가?[7]

금강산기행록」의 서두 부분으로 유람을 하게 된 동기와 동행자들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 양대박은 먼저 자신이 탈세속의 뜻을 갖고 있으며, 때문에 평생의 사업으로 산수를 노니는 일에 몰두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도 금강산은 한 번도 다녀가 본 적이 없어 항상 아쉬워하고 있었는데, 마침 부친께서 관동의 속읍인 북원의 군수가 되어 나가게 되어 기회가 되면 반드시 가보리라고 했다 하였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벌써 1년의 세월이 지나고 금강산에 가는 일이 至難한 일처럼 되어가고 있던 찰라에 홀연히 부친이 경상도로 벼슬자리를 옮기면서 잠시 틈을 내어 유람을 하게 되었다는 전갈을 받고 빠른 속도로 말을 달려 결국 부친을 모시고 금강산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평소 친한 벗인 李達과 금강산에 대해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었기에 함께 할 수 없게 된 것이 못내 아쉽다고도 하였다. 이달은 당대를 풍미하던 시인으로 양대박과는 처지나 지향하는 바가 여러 가지로 통했기 때문에 꼭 함께 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하여 그 아쉬움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하여 시작된 금강산 여행은 1572년 4월 4일부터 20일까지 대략 16일 정도 계속되는데, 여행 일지를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4/4 : 횡성현에 투숙 → 4/5 : 창봉역, 삼마현을 지남. 홍천현에 투숙 → 4/6 : 원창역에서 말에 먹임. 춘천부 관아에 들름 → 4/7 : 청평산으로 향함. 소양강을 건넘. 우두사를 지남. 환희현을 지나 완폭대에 앉음. 운수교를 건넘. 청평사에 도착. 청평사의 주지 一珠와 함께 경운동에 이름. 청평사의 일주 스님과 작별 후 고량협을 뚫고 남진강을 건너 낭천현에서 투숙 → 4/8 : 낭천현을 떠난 산양역에서 조반을 먹음. 서운역에서 말을 먹이고 금화현을 거쳐 창도의 郵舍에서 묵음 → 4/9 : 우사를 출발하여 풍천진을 건너 통구현에서 쉼. 단발령에 도착함. 단발령에서 내려와 풍원에서 잠시 쉬다가 장안사 동구에 이름. 영풍교를 건너 장안사에 들어감. 장안사에서 道和上人을 만나고 장안사에서 묵음 → 4/10 : 장안사에서 출발하여 명담으로 떠남. 도화상인은 부친을 모시고 표훈사로 향하고, 양대박은 안양암을 지나 삼일봉에 이름. 점심을 마친 후 정진봉에 도착함. 석안봉에 올라서 망고봉을 바라봄. 구암을 거쳐 송라암으로 말을 몰아 분옥계에 이름. 일석교를 건너 표훈사로 들어가 동쪽 곁방에서 묵음 → 4/11 : 만폭동으로 떠남. 세건암을 거쳐 금강담을 구경함. 선유담을 지나 보덕굴에 다다름. 일석교를 건너 관음대에서 쉼. 성적암에서 갓끈을 씻고 첨선굴을 돌아봄. 표훈사에 이르러 점심을 먹은 후 정양사로 떠남. 친친암을 지나 무등암에서 잠시 휴식함. 표훈사에 들어가 진헐대에 앉음 → 4/12 : 아침 식사 후 방광봉을 오름. 보현점을 지나 개심암에 이름. 내려와서 천덕암에서 쉼. 저녁 무렵 원통사에 이름 → 4/13 : 새벽에 원통사에서 출발하여 백운점을 지나 사자암에서 쉼. 화룡담과 珠淵, 구담 등을 둘러봄. 거빈봉을 지나 주영암에서 술을 마심. 저녁 무렵 묘길상암에 들어감 → 4/14 : 불정암을 가기 위해 안문령을 지남. 진솔암을 지나가다 갑자기 嵐翠를 만남. 해질 무렵에 불정암에 이르러 숙박함 → 4/15 : 조식 후 성불암을 내려와서 소현산을 넘어 유점사에 당도함. 개복대를 거쳐 단풍교를 건너 獐項을 지남. 구점을 넘고 사자천에 다다름. 저녁 무렵에 유점사의 경서를 수장한 곳인 經庫에 들어감. 고성 태수의 대접을 받음 → 4/16 : 조식 후 구곡계를 건너 삼준령을 넘어 명파역에 도착함. 간성의 속읍인 열산현이 이르러 간성군 태수의 저녁 만찬을 대접 받음 →

7)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余生長頭流之下, 少有物外之志, 平生事業, 都付杖策之功, 而所謂金剛, 猶未能探討, 豈非仙凡異路, 俗緣爲祟者乎. 時或逢僧說山, 語金剛不離口, 矯首東望, 思欲奮飛者, 積有年矣. 適辛未春, 家君出守北原, 原乃關東隷邑, 定省之暇, 蹔理登屬, 一至仙境, 則可以償宿願, 竊自喜幸, 然而身縻斗粟, 出入有程, 三度歸寧, 虛負一年, 世故之縛人, 可謂牢矣, 每與葉谷李益之語此, 未嘗不介介于懷也. 壬申夏四月, (中略) 忽聞家君承差嶺邑, 要討金剛, 請告星馳, 得陪杖屨, 此天也. 益之倦遊湖南, 猶作未歸人, 丁寧夙約, 竟致巧違, 失我詩伴, 豈非玆行之一缺耶."

www.kci.go.kr

4/17 : 조식을 먹은 후 영월루에 오름. 진부원에서 말을 먹임. 이수정에서 밥을 해 먹음. 남교역에 들어감 → 4/18 : 조식을 먹은 후 한계산을 지나감. 원통역을 지나 인제현에 들어가 태수의 대접을 받음. 마노역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泉甘의 傳舍에서 잠을 잠 → 4/19 : 사미정에서 노님. 정오에 삼마현을 넘어서 창봉역에서 잠시 쉰 후 횡성현에서 묵음 → 4/20 : 횡성에서 원주의 경계에 들어감.

기행록의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행선지 위주로 간단히 적어보았으나 크고 작은 여러 사찰은 물론이거니와 다수의 스님들과 관청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여행을 무사히 마친 것으로 보인다. 금강산은 험한 곳도 많지만, 가는 곳마다 신비로움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여 양대박은 곳곳을 仙境으로 묘사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다음은 지리산 유람이다. 양대박이 크고 작게 지리산을 유람한 것은 총 네 차례이다. 1차는 18세 때로 순천에 가서 부친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유람을 하였고, 2차는 23세 때로 申深遠과 천황봉에까지 올랐다. 3차는 38세 때로 李純仁과 함께 동행하여 연곡사 등을 들렀으며, 4차는 44세 때로 吳積 등과 함께 지리산의 곳곳을 유람한 후 「두류사기행록」을 남겼다. 금강산 유람은 단 한 차례 이루어진 것에 비할 때 지리산 유람은 대체로 자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는 곳과 지리산의 거리가 멀리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네 차례의 유람 가운데 논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유람은 4차라고 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기록을 통해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양대박은 4차 지리산을 유람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마침 병술년 가을, 春澗 吳勳仲이 ……(이하 11자 결)하고, 분연히 탄식하기를, "인간 세상에 30년 동안이나 살면서 천상의 세계에 날아오르지 못했네. 번뇌 많은 이 세상에 살다가 髯婦가 되고 말았으니, 애석하도다! 그대는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 속세에서 벗어나 허공에서 손을 흔들며, 뜬구름을 밟고 천지 사방을 아득히 바라보면서 조물주와 더불어 넓고 넓은 곳을 유람하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내가 답하기를 "좋은 날 깨끗한 유람을 하는 것도 靑溪에서 덕을 넓히는 것에 지나지 않으이. 산수가 빼어난 곳에서도 가슴 속의 티끌을 씻고 세속의 근심을 없앨 수 있네."라고 하였다. 오춘간이 말하기를 "아닐세. 나는 그런 시시한 유람은 싫네."라고 하여 내가 말하기를 "기필코 큰 구경을 하려면 두류산 정상에 올라야 할 걸세."라고 하였다. 마침내 서로 마음이 통했다. 그리하여 나란히 말을 타고 나서 淸虛亭 주인 楊吉甫를 찾아갔다. 그는 곧 오춘간의 외삼촌이다. 본디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을 지니고 있었는데, 우리들의 말을 듣고서 곧바로 마음이 맞아 행장을 꾸려 나섰다. 이날이 9월 2일이다.[8]

병술년(1586년) 양대박의 나이 44세 9월 초입에 오훈중(이름은 적)과 대화를 나누는 내용으로 4차 지리산 유람을 결행하게 된 배경을 담고 있다. 오적이 먼저 탄식하는 어투로 30년 동안 살면서 천상의 세계에 오르지 못했음을 안타까워하며, 속세를 벗어나 허공에서 손을 흔들며 천지 사방을 아득히 바라보는 유람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묻는다. 평소 여러 산수지간을 드나들었던 양대박인지라 오적도 저간의 사정을 알고 이러한 물음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에 대해 양대박은 처음에는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청계에서 지내는 것과 유람이 별반 크게 차이가 없다는 논리를 펼치나 오적은 멀리 유람하고픈 자신의 의지를 쉽게 꺾지를 않는다. 따라서 양대박이 큰 구경을 하려거든 지리산 정상 정도에 올라야 한다며,

8) 『靑溪集』 卷4, 「頭流山紀行錄」, "適丙戌秋, 春澗吳君勳仲名積■■■■, ■■■■■■■因奮然嗟咄曰, 處人間三十年, 無羽翼超上界, 身居火宅, 坐成髯婦, 惜哉. 子安能使我抽身塵網, 揮手寥廓, 足亂浮雲, 杳視六合, 與造物者遊於泱漭之域乎. 余應曰, 逢佳辰辦淸遊, 不過廣德靑溪乎. 山水之勝, 足以盪塵胸而除俗想矣, 春澗曰, 未也, 吾惡其小. 余曰, 必也大觀, 則其頭流絶頂乎. 遂相視莫逆, 因竝馬以出, 往尋淸虛亭主人楊君吉甫, 楊君卽春澗之舅氏也, 素有仁智之性, 聞言卽合, 相與理屐而行, 是九月二日也."

www.kci.go.kr

드디어 산수 유람을 실행할 계획에 돌입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인 양길보 등과 함께 드디어 지리산 유람을 결행하기에 이르렀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여행 일지를 행선지 중심으로 간단히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9/2 : 날이 저물 무렵 嶺院에 모여 쉬다가 雲峯縣에 도착하여 저녁을 먹음 → 9/3 : 황산의 碑殿에서 쉼. 引月驛에 도착하여 웅담수 가에 이르러 북쪽을 향해 산을 오름. 백장사에 이르러 현묘당에서 숙박 → 9/4 : 梁光祖 합류. 邊士貞의 은거지를 찾음. 실상사 옛터를 찾음. 頭毛潭에 당도. 군자사로 들어가 저녁을 먹음 → 9/5 : 용유담에 도착하여 구경 후 군자사로 다시 돌아옴 → 9/6 : 이른 아침 의촌을 거쳐 초정동으로 들어감. 백문당에 도착. 정오에 哭巖에 이름. 제석당 터에 당도함. 저물녘에 제석신당에 오름. 穴巖에 도착 → 9/7 : 천황봉에 이르러 오춘간과 여러 이야기를 나눈 후 하산함. 하산 도중에 하동 바위에서 쉼. 군자사에서 묵음 → 9/8 : 용유담에 당도. 이모가 계시는 목동에 들러 묵음 → 9/9 : 이모의 집 근처의 시냇가에서 주연을 베풂 → 9/10 : 禹仲平의 집에서 술자리를 마련 → 9/11 : 조식 후 이모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사기현을 넘어 팔량원에서 점심을 먹고, 저녁에 비전으로 들어가 묵음 → 9/12 : 정오쯤에 안신원 뒷고개를 넘어 대나무 숲이 우거진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옴.

10일 정도의 유람인데다가 다녀온 행선지도 금강산에 비해 단순하여 그리 번잡스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만, 금강산 유람 때와 마찬가지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기록으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양대박은 이와 같이 두 편의 기행록을 통하여 유람 과정을 상세히 적었는데, 여기에 시문까지 제작하여 유람의 묘미를 더하였다. 기행록은 시간적인 순서를 지켜가며 써 내려가는 것이고, 시문은 그러한 시간의 질서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둘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실제 시문을 통하여 서로의 同異点을 엿볼 수 있다. 시제에서 유람지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기행록의 내용과 대비해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산수 遊覽의 시적 표현

양대박은 산수를 유람한 후 모두 50편의 시문을 남겼는데, 속리산 유람시 3편, 금강산 유람시 30편, 지리산 유람시 17편 등이 그것들이다. 이 중 속리산 유람시 3편은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강산과 지리산 유람시만을 대상으로 시적 표현의 특징을 논해 보고자 하는데, 시제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금강산 유람시	지리산 유람시
將遊楓嶽 入淸平寺壬申夏, 西川 贈高僧玄默, 登斷髮嶺, 入長安寺, 次表訓寺東廂室韻, 萬瀑洞, 普德窟, 次慧能詩軸韻, 眞歇臺玩月, 開心庵, 獅子菴 飮甘露水, 火龍潭, 摩訶衍, 歷盡內山 宿妙吉祥菴十四韻, 次楡店山峽樓韻 贈慧禪, 茂松臺觀海, 鳴沙, 次蒼峯驛板上韻, 將遊金剛 次橫城板上韻, 次洪川板上韻, 謹用家大人韻, 昭陽亭, 淸平瀑布, 松蘿菴, 登望高臺, 正陽寺, 圓通寺玩月, 次一見大禪詩, 登佛頂臺, 佛頂庵 觀日出	燕谷東庵 憶觀師, 雙溪石門, 翫瀑臺, 百丈寺, 金臺, 見星庵贈僧, 千人窟, 引月途中此下九首 遊頭流作, 百丈寺南臺 贈巖師, 次春澗頭毛潭韻吳勳仲積時同遊, 君子寺圓通殿, 次春澗龍遊潭韻, 邊山人隱居邊士貞居桃灘 召爲參奉, 實相寺廢基, 宿天王峯 曉起候日出, 下山遇雨, 題雪峯頭流錄後雙疊元土宗

금강산 유람시의 경우, 『청계집』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배열한 것으로 유람의 행선지와는 관계가 없다. 다녀간 행선지에 맞추어 시제를 재배열한다면, 「차횡성판상운」→ 「차홍천판상운」→ 「소양정」→ 「장유풍악 입청평사임신하」→ 「청평폭포」→ 「등단발령」→ 「입장안사」→ 「송라암」→ 「차표훈사동상실운」→ 「만폭동」→ 「등망고대」→ 「보덕굴」→ 「정양사」→ 「진헐대완월」→ 「차혜능시축운」→ 「개심암」→ 「원통사완월」→ 「사자암 음감로수」→ 「화룡담」→ 「마하연」→ 「역진내산 숙묘길상암십사운」→ 「불정암 관일출」→ 「등불정대」→ 「차유점산영루운 증혜선」→ 「무송대관해」→ 「명

www.kci.go.kr

사」→「차창봉역판상운」으로 할 수 있다. 한편, 지리산 유람시는 적어도 두 차례 이상의 유람시가 섞여 있는데, 44세 때 다녀온 4차와 관련된 유람시는「인월도중」부터 시작하여 총 10수이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지리산 유람시의 경우, 4차 유람시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4차 때 기행록을 남겨 금강산 유람시와 비등한 위치에서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양대박의 금강산 유람은 횡성으로부터 시작하였다.[9] 다음은 이제 막 금강산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횡성에서 지은 작품으로 금강산 유람의 첫 작품으로서의 의미 때문에 들어본다.

橫巒直北水流東	산은 북으로 가로 막혀 있고 물은 동으로 흐르니
摸寫令人更着功	사람으로서 모사하려면 공력을 다해야지
庭樹晩風宜晝夢	정원의 나무 그늘 늦바람에 낮잠 자기 마땅하고
不妨高臥聽黃公[10]	높이 누워서 듣는 꾀꼬리 소리 싫지만은 않네

산지로 둘러싸인 횡성의 지형적 구조와 그 지형을 어떻게 그려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승구에서 담았고, 전・결구에서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소소한 일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주변의 상황에 대한 느낌 등을 담았다.

이렇게 횡성으로부터 시작된 금강산 유람은 이후 소양정, 청평사, 단발령, 장안사 등등 유무명의 유적지를 둘러보는데, 시적 표현의 면에서 寫景 중심의 작품이 많다는 특징을 포착할 수 있다.

다음은 「소양정」이라는 시제의 작품으로 작자 자신의 생각은 거의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敍景만을 보여주어 시문만으로도 소양정 주변의 승경을 대강은 알 수 있을 정도이다.

遠客惜芳草	먼 곳에서 온 손님 꽃다운 풀 아껴
昭陽江上行	소양강 위를 걷고 있네
高亭臨古渡	높은 정자는 옛 나루터에 임하였고
喬木夾飛甍	높은 고목나무는 기와지붕을 이웃하였네
列岫天邊淡	먼 산봉우리는 하늘가에 둘러있고
晴波檻外明	맑은 냇물은 난간 저쪽에 밝아있네
風流堪畫處	좋은 경치 그림 그릴만 하니
漁艇帶烟橫[11]	고기잡이배에 띠 두른 내 비껴있네

李裕元은『林下筆記』에서 소양정을 설명하기를 '소양정은 춘천부 동쪽 6리의 소양강 기슭에 있다. 전해 오는 말에 의하면 三韓 때에 창건한 것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二樂樓라고 고쳐 부르다가 뒤에 지금의 이름으로 복구하였다. 그리고 선조 을사년(1605)에 큰물이 져서 떠내려갔는데 광해군 경술년(1610)에 부사 李希聃이 지었으며 정종 정유년(1777)에 다시 물에 떠내려간 것을 경자년(1780)에 부사 李東馨이 중건하고 그 기문을 지었다.'[12]라고 하였다. 즉, 소양정은 소양강가에 있는 정자로 양대박은「금강산기행록」에서 소양정에 이르렀을 때의 주변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늦어서 소양강을 건너니 강가에는 정자가 날아갈 듯이 서 있고 정자 주변에는 키 큰 나무들이 즐비하며 난간 밖에는 깨끗한 모래가 펼쳐 있어 족히 경치 좋은 곳이라고 할만했다. 나루지기가 나와 맞이하여 배를 끌고서

9)『靑溪集』卷4,「頭流山紀行錄」, "初四日己未晴. 胡琴手李誠自京來謁, 因與之俱, 促裝發行. 陪家君飮餞于雙花岸上. 淸川抱樹, 亂山圍野, 溪邊有巖, 可坐數十人, 景物瀟洒. 鄕人數三, 先設別筵, 開尊以待之. 停驂少憩, 向夕投宿橫城縣."

10)『靑溪集』卷2,「將遊金剛 次橫城板上韻」

11)『靑溪集』卷2,「昭陽亭」

12) 李裕元,『林下筆記』卷13,「文獻指掌編」昭陽亭, "亭在春川府東六里昭陽江岑. 諺傳, 三韓時所創, 中間改稱二樂樓, 後復今名. 宣祖乙巳, 大水漂去, 光海庚戌, 府使李希聃建, 正宗丁酉, 又水漂, 庚子, 府使李東馨, 重建撰記."

www.kci.go.kr

호위하며 강을 건넜다.[13]

양대박은 금강산 유람 나흘째 되는 날 소양강에 이르러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주변에 정자가 하나 있었다고 하였다. 양대박은 이 정자를 '날아갈 듯하다'라고 하여 강가에 아스라이 서 있는 광경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정자 주변으로는 큰 나무가 즐비하게 있고, 모래가 펼쳐져 있어 아름다운 풍광을 지녔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며 마지막으로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모습까지 언급하였다. 이러한 기행 내용을 시문과 대비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시문의 수련에서 자신이 지금 소양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함련에서부터 경련까지는 소양정 주변의 승경을 사실 그대로 模寫해가고 있는데, 옛 나루터에 임한 높은 정자, 기와지붕에 이웃한 고목나무, 하늘가에 둘러있는 산봉우리, 난간 저쪽의 맑은 냇물 등등 마치 카메라의 앵글을 순서에 맞추어 가듯이 곳곳을 그대로 보여주려는 자세를 버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는 이러한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소양정 주변의 승경은 그림으로도 그릴만하다고 하며 마치 자신이 시에서 寫景化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다. 다음은 「만폭동」이라는 시제의 작품으로 마찬가지로 사경이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蒼崖斷斷洞門開　푸른 산비탈에 둘러선 동문이 열렸으니
一逕高低間綠苔　한 산길 높고 낮아 푸른 이끼 끼여있네
山勢拄天明似戟　산봉우리 하늘에 솟았으니 밝아서 창과 같고
泉流激石響成雷　흐르는 물 돌에 부딪치니 뇌성소리와도 같구나
逍遙轉撥烟霞興　먼 곳에 굴러와서 내와 안개 일어나니
摸寫慚非賦咏才　이 경치 모사하자니 시재 없음이 부끄러워
玉局他生曾有債　옥국의 다른 인생들 일찍 빚이 있었구나
石橋今日踏天台[14]　돌다리 오늘에야 천태를 밟았네

이유원은 『三才圖會續集』의 말을 인용하여 만폭동을 설명하기를 '『삼재도회속집』에 이르기를 만폭동은 금강산 속에 있다. 수많은 飛泉이 골짜기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 형태가 한결같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름을 만폭동이라 한다.'[15]라고 하였고, 丁若鏞은 그의 글 「汕水尋源記」에서 '만폭동은 회양부 동남쪽 1백 30리의 금강산 중에 있는데, 그 안의 모든 산골짜기의 물이 모두 鳴淵으로 들어와, 서쪽으로 百川洞의 물과 더불어 長安寺 남쪽에서 합류, 남쪽으로 흘러 新院에 이르러 우측으로 長北川을 거치고, 또 長楊 옛 고을에 이르러 우측으로 沙川의 물을 거친다.'[16]라고 하였다. 이러한 만폭동을 양대박은 금강산 유람 11일째 되던 날 가게 되었는데, 그곳의 광경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마치 이유원과 정약용의 만폭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묘사한 듯한 느낌을 주는 글이다.

> 표훈사에서 5리쯤 떨어져 銀城과 粉壁이 좌우에 층층이 서 있고, 백 갈래 길의 나는 듯한 샘물이 하늘 밖까지 천둥치듯 흘러내려 깊은 것은 못이 되고 얕은 것은 여울을 이루며, 흐르다가는 소용돌이가 되고 떨어지면 폭포가 되니, 마음이 놀라서 능히 한 곳에 눈을 머물 수가 없었으니, 조화의 교묘함이 여기에서 그 극진함을 보이고 있다.[17]

13)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晩渡昭陽江, 江上有亭翼然, 亭邊喬木, 檻外晴沙, 足云勝地. 津吏迎拜, 擎舟護涉."

14) 『靑溪集』 卷1, 「萬瀑洞」

15) 李裕元, 『林下筆記』 卷37, 「蓬萊秘書」, "三才圖會續集, 曰萬瀑洞, 在金剛山中. 百道飛泉, 瀉出谷中, 其然非一, 故名."

16) 丁若鏞, 『茶山詩文集』 卷22, 「汕水尋源記」, "萬瀑洞在淮陽府東南一百三十里金剛山中, 其內山諸谷之水, 盡注于鳴淵, 西與百川洞之水, 合于長安寺之南, 南流至新院, 右過長北川, 又至長楊古縣, 右過沙川之水."

17)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距表訓五里許, 銀城粉壁, 左右層立, 百道飛泉, 雷轟天外, 深者作潭, 淺者成瀨, 流而爲盤渦, 落而爲懸瀑, 心驚目駭, 莫能注視, 造化之巧, 於斯極矣."

www.kci.go.kr

먼저 만폭동과 표훈사와의 거리를 언급한 후 만폭동 주변의 자연 형세를 말하고 있다. 나는 듯한 물줄기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형세를 '천둥치듯'이라고 하여 그 장관을 형용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장관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님에 양대박은 '마음이 놀라서 능히 한 곳에 눈을 머물 수가 없었다.' 라고 하며, 떨어지는 물줄기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었다.

이러한 기행록의 내용을 알고 다시 「만폭동」의 시문 내용을 살피면, 마치 기행록의 내용을 일부 옮겨놓은 듯한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만폭동」시문의 수・함련과 경련의 첫 구절은 서경을 중심으로 만폭동 주변의 승경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담아내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 푸른 산 비탈에 열려진 洞門과 높고 낮은 산길에 낀 푸른 이끼, 그리고 하늘 높이 솟아있는 산봉우리는 밝아 뾰족한 마치 창과도 같은데, 흐르는 물은 마치 뇌성과도 같다고 하였다. 시・청각의 감각을 어우르면서 만폭동의 장관을 뛰어난 詩才가 아니면 결코 모사해낼 수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玉局'을 언급하며, 결국 만폭동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신선의 세계에서나 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음 작품은 「보덕굴」이라는 시제로 보덕굴은 만폭동 골짜기에 자리 잡은 암자로 고구려 때에 지어졌기 때문에 유서깊은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만폭 8담의 하나인 '분설담'의 오른쪽 20m 벼랑에 매달리듯 서 있는데 그 모습이 기묘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는 곳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보덕굴을 양대박은 앞에서 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서경적인 측면에 치중해서 시문에 담아내었는데, 「금강산기행록」과 시문의 내용을 함께 나열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 인하여 선유담을 지나 보덕굴에 다다르니 층층한 언덕이 천 길이나 되는데 석벽에는 길이라고는 없었다. 그 아래에는 두 개의 구리 기둥을 세워놓고 공중에다 집을 걸터앉혔는데 아로새긴 난간과 그림 그린 기둥이 구름 끝으로 날아올라 있으니, 바라보매 마치 산신령이 살아 있는 그림을 바친 것이 아닌가! 바다 위에 있는 신기루가 찬란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여서 사람으로 하여금 경탄하여 저도 모르게 오래도록 우두커니 서 있게 하였다.[18]

鐵柱倚層巘	쇠기둥으로 층층이 괴어놨으니
瑤牕懸半空	구슬창이 허공중에 달려있네
人行圖畫裏	사람들은 그림 속에서 걸어다니고
地入有無中	땅이 들어설 곳 그 속에 있을까 없을까
石帶千秋雪	돌은 오래된 흰눈을 두르고 있고
山鳴萬壑風	산에는 일만 골짜기의 바람소리 울리네
飛車吾可馭	나는 수레를 내 운전하여
直上廣寒宮[19]	바로 광한궁에 오르려네

금강산기행록」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보덕굴이 놓여진 위치가 위태롭기 짝이 없다. 층층한 언덕은 천 길이요, 석벽에는 길이라고는 없고, 그 아래에 구리 기둥을 세워놓고 공중에 집을 걸쳐 놓았으니 난간과 기둥 등이 하늘 멀리 구름 끝으로 날아오른 듯하다라고 하였다. 심지어 산신령이 살아있는 그림을 바친 것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신기루가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러하니 보는 이로 하여금 경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보덕굴을 본 느낌과 소감은 시문으로 그대로 옮겨지는데, 감탄을 금치 못했던 광경인지라 충분한 감정의 이입이 시문의 내용을 채울 것도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덕굴 주변의 승경을 중심으로 감정은 거의 절제된 상태에서 사경화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사경화는 수련

18)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因過仙游潭, 抵普德窟, 層崖千仞, 石壁無路. 其下立兩箇銅柱, 凌空架屋, 雕欄畫棟, 飛出雲末, 望之疑若山靈呈活畫也. 海蜃騰彩輝也, 令人驚歎, 不覺佇立久也."
19) 『靑溪集』 卷1, 「普德窟」

www.kci.go.kr

부터 시작하여 경련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 미련에서 겨우 화자 자신의 의지를 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아스라하게 공중에 매달린 보덕굴의 모습을 수련에서 그린 후,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사람들이 그림과 같이 걸어다닌다라고 하여 현실계와 동떨어져 있음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 경련도 마찬가지로 서경을 묘사하는데 치중하면서 청각적인 이미지까지 가중시켜 시적인 감각을 배가시키고 있다. 한편, 마지막 미련에서는 경련까지와는 달리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덕굴이 허공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飛車'라는 표현을 쓰며 신선의 세계인 광한궁에 가는 통로로 삼고 싶다고 하였다. 바로 보덕굴을 현상계와 신선계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상 양대박의 금강산 유람시의 표현 방법을 중심으로 살폈는데, 다수의 작품에서 서경을 중심으로 사경화한 경향이 있음을 엿보았다. 이렇게 된 이유는 여러 원인에서 찾아질 수 있는데, 첫째 기행록에서 금강산의 승경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시문에까지 옮겨져 사실을 그대로 옮기고만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둘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금강산 유람이기 때문에 시문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승경을 담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기행록과 시문의 문학 장르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즉, 짧은 시문 양식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승경을 寫實的으로 그려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은 지리산 유람시를 살필 차례이다. 4차 지리산 유람 때에 지은 첫 작품을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仙山隣太乙　선산이 태을성과 이웃했으니
蘭逕有無中　난초 우거진 길이 있다가도 없네
安谷雲霞古　안곡 깊은 골에 구름과 안개 자욱하고
臺巖水石雄　대암 바위 아래 물과 돌 웅장하기도 하네
亂峯高下碧　어지러운 산봉우리 위 아래 다 푸른데
寒葉淺深紅　차가운 잎사귀 얕고 짙게 붉네
擬待王喬駕　왕교의 신을 얻어 신고서
秋風望遠空[20]　가을바람에 먼 허공을 바라보려네

태을성은 도교 용어로 천제가 常居한다고 생각하는 세계로, 양대박은 지리산을 '仙山'이라고 하며 도교적 산수 의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문의 내용을 시작하여 경련까지 사경화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즉, 주로 引月驛 주변의 승경을 읊되 서경을 중심으로 하여 주변의 자연 풍광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난초가 우거진 길, 구름과 안개 자욱한 골짜기, 바위 아래의 웅장한 물과 돌, 위 아래가 모두 푸르른 산봉우리, 얕고 짙게 붉은 빛으로 물들은 차가운 잎사귀 등등 사경화의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미련에 등장한 '王喬'는 '王子喬'로 중국 주나라 靈王의 태자 晉을 가리킨다. 태자 시절에 왕에게 직간했다가 폐해져 庶人이 되었는데, 젓대를 잘 불어 봉황새 소리를 냈으며, 道士 浮丘公을 만나 흰 학을 타고 산꼭대기에서 살았다고 한다.[21] 시적 화자 자신이 왕교의 신발을 신겠다는 뜻은 자신이 직접 신선이 되겠노라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같은 유람시이지만 다른 지리산 유람시를 보면, 태반이 사경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感興을 담고 있다. 다음 작품은 군자사 안의 원통전에서 지은 시문이다.

君子知名寺　군자사는 이름높은 절로
諸天古道場　예부터 불교를 수련하는 도량이었네
遠尋方丈路　멀리 신선이 살고 있는 곳을 찾고
三宿贊公房　세 번이나 찬공방에서 유숙하여
桑下寧無戀　잠시 머물렀던 연정이 없이
雲中久着狂　구름 속에서 미친 듯 오래도록 살고 싶네

20) 『靑溪集』 卷1, 「引月途中」
21) 『列仙傳』, 「王子喬」

www.kci.go.kr

他時來問法　다른 때에 와서 불도 닦은 법을 물어
直欲上慈航[22]　곧 극락세계로 올라가고자 하네

양대박은 지리산을 유람하면서 군자사에서 세 번을 숙박한다. 위 시에서 '三宿'이라는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세 번째 유숙하게 되었을 때 지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먼저 수 • 함련에서는 군자사가 불교를 수련하는 도량으로서 옛날부터 이름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서 화자 자신은 세 번씩이나 머물러 유숙하게 되었노라고 하였다. '贊公'은 중국 당 때의 고승으로 杜甫와 교의가 두터웠던 까닭에 두보가 여러 차례 그의 방에서 잠을 자고 시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자는 지금 군자사의 주지스님을 '찬공'에, 그리고 자신을 두보에 비견하며,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오래 머무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애착이 생기기 쉬우므로 뽕나무 아래에서 잠시 머무르듯이 아무런 연정도 없이 구름 속에서 지내고 싶다고 한다. 즉, 자연과 벗하고자 하는 자신의 의지를 담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미련에서 다음에 또다시 오겠노라는 기약을 의미하는 말을 하고 있다. 전체적인 시문을 표현 방법을 정리하자면, 결코 사경화에 치우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감흥을 최대한 드러내려는 의도를 보여준 작품으로 인식된다.

양대박은 지리산 유람 도중에 실상사의 옛터를 찾았는데, 「두류산기행록」을 통해 그때 보고 들은 것을 다음과 같이 적었다.

> 말을 타고 도탄 하류를 건너 실상사의 옛터를 찾았다. 절은 폐허가 된 지 1백 년이 지나 무너진 담과 주춧돌이 가시덤불 속에 묻혀 있었다. 오직 깨진 비석이 길 옆에 쓰러져 있고 철불이 石床 위에 우뚝 앉아 있을 뿐이었다. 한 승려가 말하기를 "이 절은 고려조에 창건한 대가람으로, 그 뒤 兵火로 소실되었습니다. 지난날 화려하게 단청했던 불전은 지금은 시골 사람들의 농경지가 되고 말았으니, 또한 山家의 불행입니다. 흥망성쇠는 석가여래라 하더라도 면할 수 없는 것이지요."라고 하였다. 나와 吳春澗은 말을 세우고 서성이다가 길을 떠났다.[23]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 증각대사 洪陟이 당나라에 유학, 지장의 문하에서 禪法을 배운 뒤 귀국했다가 禪定處를 찾아 2년 동안 전국의 산을 다닌 끝에 실상사 자리에 발길을 멈추고 창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뒤 여러 차례의 수난을 겪었지만, 몇 번의 중수 작업을 통하여 복원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24] 이러한 실상사를 양대박이 찾았을 때는 폐허가 된 상태로 방치되어 복원이 전혀 안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폐허가 된지 1백년이 지났건만 담은 무너지고, 주춧돌은 가시덤불 속에 있으며, 비석만이 길옆에 쓰러져 있다고 하며, 폐허된 절터의 참혹상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승려의 말을 빌어 또 다시 실상사 절터의 변화된 모습을 알려주고 있다.

이와 같이 실상사에 대한 인상적인 기록을 남긴 양대박은 감흥을 곁들인 다음과 같은 시문을 지었다. 懷古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는 있지만, 표현의 방법적인 측면에서 앞의 「군자사원통전」과 같은 맥락에서 읽혀질 수 있는 작품이다.

興廢一彈指　흥하고 망한 것은 잠깐 한 순간 사이인데
光陰千劫塵　흐르는 세월은 수 천만 년 한 없네
龍天亦消歇　용궁과 극락세계 다 흔적을 감추었고
金地已荊榛　금지 옛터에도 이미 가시덩굴이 우거졌구나
石爛碑無字　돌난간에 오래된 비석 글자가 사라지고

22) 『靑溪集』 卷1, 「君子寺圓通殿」

23) 『靑溪集』 卷4, 「頭流山紀行錄」, "遂策馬去, 涉桃灘下流, 尋實相寺舊址. 寺廢已百年, 頹垣破礎, 埋沒荊榛間. 唯殘碑橫臥路側, 鐵佛巍然坐石床而已. 僧云, 此是麗朝所創大伽藍也. 後爲兵火所蕩, 昔時琳宮珠殿, 今爲田翁野叟耕種之地, 此亦山家之不幸, 而盛衰興廢, 雖金仙不能免也. 余與春澗立馬躊躇而去."

24) 실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lsangsa.or.kr) 참조.

www.kci.go.kr

山空佛有身　빈 산에는 부처 알몸만 서있네
溪流多意緖　저 흐르는 시냇물도 옛날 한이 많을 것인데
嗚咽送行人[25]　목매인 소리로 가는 손님들을 보내네

먼저 수련에서는 흥망과 흐르는 세월을 대비하여 흥하고 망한 것은 일순간임을 강조하였다. 이는 결국 함련의 폐허가 된 실상사 절터의 모습을 말하고자 하는 포석으로 '龍天'과 '金地와 같은 절과 관련된 곳들이 이제는 흔적을 감추고, 가시덩굴이 우거졌다고 하였다. 경련에서도 또한 같은 내용이 이어지며, 돌난간에 새겼던 비석의 글자가 사라지고, 사람들이 불공을 드렸을 불상은 내동댕이쳐진 상태로 산에 뒹굴고 있다고 하며 안타까운 감정을 드러내었다. 그러면서 미련에서 이러한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자연 산천이야말로 한 맺힌 소리로 가는 손님들을 보내고 있을 뿐이라고 하여 아쉬운 감정의 상태를 마지막까지 보여주고 있다.

이상 지리산 유람과 관련된 시문의 표현 방법을 살폈다. 금강산 유람시에 대비해볼 때 지리산 유람시는 주변의 승경을 사경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흥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유람시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산 유람의 경우, 금강산 유람에 비할 때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양대박이 사는 위치상으로 볼 때 금강산에 비할 바가 안될 정도로 지리산은 생각이 있으면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승경지였다. 따라서 유람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신적인 여유를 찾았을 것은 자명한데, 이런 가운데 지어진 시문이기 때문에 그냥 사경화한 데에서 그치기보다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보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25) 『靑溪集』 卷1, 「實相寺廢基」

4. 산수 遊覽詩의 평가와 의의

본 논고의 머리말에서 언급하기를 양대박은 자유의 몸이 되어 두류산, 가야산, 천마산, 삼각산, 만리재, 운문산, 금강산 등등 다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하였다. 이렇듯 양대박의 산수 편력은 유달리 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편력을 가지게 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세상 밖에 멋지게 노닌 지 겨우 몇 십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도리어 가슴 속이 시원해져서 더러운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았으니, 옥돌로 빚어 만든 다면 다른 날에 가히 페르시아의 귀한 보배처럼 삼을 수 있을 것이다.[26]

금강산 유람을 무사히 마친 후 한 언급으로서 16일이라는 짧지 않은 유람이었기 때문에 피곤함을 먼저 느꼈을 것인데, 그 보다는 유람 덕분에 가슴 속이 시원해져서 더러운 찌꺼기가 남지 않아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다면 마치 페르시아의 보배처럼 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유람의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신을 수양하는 수단으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다른 이들의 산수관과 대비해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찍이 李珥는 산수를 보는 유형으로서 첫째 目見而已, 둘째 深知山水之趣, 셋째 知道體 등으로 나누었다.[27] 즉, '목견이이'란 눈에 보이는 풍광만 볼 뿐 다른 정취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고, '심지산수지취'란 산수의 정취를 깊이 아는 것이고, '지도체'는 산수 자연이 지닌 도체까지 아는 것을 이르는 것으로 이이는 당연히 성리학자의 입장에서 '지도체'할 때라야 만이 최고의 산수관을 지닌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조동일은

26) 『靑溪集』 卷4, 「金剛山紀行錄」, "物外雲遊, 纔涉數旬, 而轉覺胸懷爽然, 絶無査滓, 凝璧他年, 可作波斯之寶矣."
27) 李珥, 『栗谷先生全書』 卷13, 「洪恥齋仁祐遊楓嶽錄跋」, "士之遊金剛者, 亦目見而已, 不能深知山水之趣, 則與百姓日用而不知者, 無別矣. 若洪丈可謂深知山水之趣者乎. 雖然, 但知山水之趣, 而不知道體, 則亦無貴乎知山水矣."

www.kci.go.kr

산수시의 양상을 첫째, 경치를 그리는 데 충실하고 흥취나 주제를 드러내지 않는 것, 둘째 경치에다 흥취를 보태기만 하고 주제는 드러내지 않는 것, 셋째 경치나 흥취로 만족하지 않고 주제를 드러내는 것[28] 등으로 삼분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을 바탕으로 양대박의 산수관을 정리하자면, 이이의 경우 두 번째, 조동일의 경우는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곧, 산수의 정취를 깊이 알고 있으면서 작품을 통해 표현해 낼 때 경치만을 그리는데 충실하거나(금강산 유람시의 경우), 경치에다 흥취를 보태기만 하고(지리산 유람시의 경우)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양대박은 도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리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산수를 그저 눈으로만 보고 마는 것도 아닌 경치를 보고 감흥을 일으켜 시문으로 완성시키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다.

비평가로 더 잘 알려진 許筠이 양대박의 아들인 梁慶遇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언급하기를 '돌아가신 자네 아버지는 문장이 매우 좋아서 참으로 作家였네.'[29]라고 하였다. 이는 허균이 양대박의 문집 서문을 의뢰받아 써주면서 답장의 편지로 쓴 일부인데,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허균은 문학과 사상을 분리해서 볼 줄 아는 문학비평가였다. 따라서 '진정한 작가'라는 표현은 성리학적 사고에 젖어 사상이 문학을 압도하는 이에게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결국 양대박은 순수 문학 작품을 창작한 작가로서 16세기 성리학이 만연한 가운데에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순수한 문예 정신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산수시 창작의 의의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5. 맺음말

본 논고는 양대박의 산수 유람시를 통하여 그의 시적인 재능을 드러냄을 1차적인 목표로 정함과 아울러 특히 작품을 어떻게 표현하였으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등을 논의해 보고자 하였다.

양대박은 전국 곳곳의 산수를 두루 유람하였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보고, 경험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특히, 금강산과 지리산을 유람하고서 「금강산기행록」· 두류산기행록」 등의 산문 글과 시문 47편을 남겼음을 확인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이중 금강산 유람시 30편과 지리산 유람시 10편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는데, 둘의 유람시의 표현상 차이를 간파할 수 있었다.

먼저 금강산 유람시는 표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서경을 중심으로 사경화한 경향이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된 이유를 본 논고에서는 세 가지로 추측했는데, 첫째 기행록에서 금강산의 승경을 완전히 담을 수 없다는 아쉬움이 시문에까지 옮겨져 사실을 그대로 옮기고만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고, 둘째,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금강산 유람이기 때문에 시문을 통해서라도 최대한 승경을 담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행록과 시문의 문학 장르의 차이를 고려한 결과로서 짧은 시문 양식 안에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승경을 사실적으로 그려냈을 것으로 여겼다.

한편, 지리산 유람과 관련된 시문의 표현 방법을 살폈는데, 금강산 유람시에 대비해볼 때 지리산 유람시는 주변의 승경을 사경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감흥을 드러내려고 했음을 볼 수 있었다. 같은 유람시이지만, 이러한 차이가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는 지리산 유람의 경우, 금강산 유람에 비할 때 정신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였다. 양대박은 사는 위치상으로 볼 때 금강산과 비할 바가 안될 정도로 지리산과 가까웠다. 때문에 수시로 드나들었는데, 유람의 횟수를 거듭할수록 정신적인 여유를 찾았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가운데 지어진 시문이기 때문에 그냥 사경화한 데에서 그치기보다는 자신이 느낀 감정을 스스럼없이 드러내보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양대박은 평생 자유의 몸이 되어 전국 방방곡곡 다니지 않은 곳이 없

28) 조동일(1987), 98쪽 참조.
29) 許筠, 『惺所覆瓿稿』 卷21, 「與梁子漸」, "尊先公文章甚好, 誠作家也."

www.kci.go.kr

을 정도로 산수 유람을 즐겼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산수 편력은 다른 데에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신의 정신 수양 차원에서 결행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대 성리학이 무르익을 무렵의 성리학자들이 道體를 찾기 위하여 산수를 유람한 것과 대비되는 측면인데, 따라서 산수 유람시의 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산수 유람시에서 풍광을 보게 되면 사경화하는 데에서 그치거나 감흥을 일으키고 마는 데에까지만 이를 뿐 더 이상 산수를 나름대로 해석해내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결국 이는 양대박이 순수 문예인으로서 도학을 주로 주장했던 성리학자들과 대비될 수 있는 측면으로 결론을 맺었다.

참고문헌

『列仙傳』

梁大樸,『靑溪集』

李裕元,『林下筆記』

李 珥,『栗谷先生全書』

丁若鏞,『茶山詩文集』

許 筠,『惺所覆瓿稿』

안장리,「16세기 팔경시에 나타난 미의식의 양상-<俛仰亭三十詠>을 중심으로-」,『열상고전연구』25집, 열상고전연구회, 2007.

梁太淳,「靑溪 梁大樸의 생애와 한시」,『한국한시작가연구』6집, 한국한시학회, 2001, 509~516쪽 참조.

조동일, 산수시의 경치, 흥취, 주제」,『국어국문학』98호, 국어국문학회, 1987, 98쪽 참조.

실상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ilsangsa.or.kr)

<투고일 : 2009. 6. 30. 심사일 : 2009. 7. 16. 심사완료일 : 2009. 8. 11.>

Abstract

Chonggye Yang Dae-Bak's Sightseeing Tour and Poetic Expression

Park, Myoung-hui

This study aims to analyse how Yang Dae-Bak showed his talent of poetry writing, how he represented what he felt in sightseeing through poetry writing, and how it has been evaluated.

Yang made tours of everywhere in his country during which he saw and experienced many things. In particular, after traveling Mt. Geumgang and Mt. Jiri, he wrote proses such as「Geumgangsankihaengrok」·「Duryusankihaengrok」 and 47 poetic works. This study targets his 30 poetic works on tour to Mt. Geumgang tour and 10 ones on tour to Mt. Jiri.

His tour was intended to train himself, not to do something else. It was different from the tour of confucians who tried to find a body of moral at the time when Confucianism was ripening. Therefore, evaluation of his sightseeing tour should consider the aspect. So, when he saw beautiful landscapes during the tour, he just admired them or was just impressed rather than he interpreted it on his own. Finally, this study concluded that Yang Dae-Bak was a literary person who was innocent and pure, and was different from confucians who suggested the importance of moral philosophy.

Key words : Chonggye Yang Dae-Bak, Sightseeing Tour, Poetry of Sightseeing, Mt. Geumgang, Mt. Jiri,「Geumgangsan Tour Account」,「Duryusan Tour Account

www.kci.go.kr